

전주한옥마을 여행객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지난 한해 빅데이터 분석결과 1053만9700명 다녀가
외국인은 13만6662명 · 전주 전체 방문객 5654만여명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이 3년 연속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주시가 지난 한해동안 전주시민 및 2시간 미만 체류인구를 제외한 통신데이터와 외국인 로밍데이터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 수가 내국인 여행객 1천40만3천38명과 외국인 여행객 13만6천662명 등 총 1천53만9천7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219만1,799명(21%) △30대 208만3,994명(20%) △40대 200만3,377명(19%) △50대 169만6,227명(16%) △60대 이상 142만8,563명(14%)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방문객이 550만9천 897명으로 여성 방문객(489만3,141명) 보다 많았으며 월별로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100만6,013명이 찾은 3월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방문객의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여행객이 전체의 41%(5만658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2%, 1만6272명)과 미국(8%, 1만198명), 대만(5%, 6261명), 홍콩(3%, 455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일본과 미국 여행객이 각각 5천여명 늘었으며, 호주와 러시아 여행객의 방문도 2~3배 증가했다.

실제 전주 방문객의 밀집도를 보여준 빅데이터 핫스팟 분석결과에서는 과거 전주한옥마을로 집중된 방문객이 덕진공원 인근과 서부신시가지 주변을 포함한 3개 권역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옥마을에서는 자민벽화마을과 남부시장 일대로 방문객의 발길이 확산되고 덕진공원 인근의 경우에는 덕진연못과 동물원을 중심으로 전북대와 전주종합경기장, 전주역 차마중길, 이종호수 일대까지 외래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짧은 층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방문 연령층의 변화와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소 비중의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글로벌 문화관광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호철 기자



따뜻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 21일 전주시의 최고기온이 영상 8도로 완연한 날씨가 이어지자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시민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하고 있다.

주거불편 해결... '해피하우스' 확대

전주시, 주거취약계층 등 대상자 · 서비스 품목 확대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전주시민들의 주거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의 대상자와 서비스 품목이 확대된다.

시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주거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해피하우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사업대상과 서비스 품목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서비스 대상 기준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의 시민들까지 확대했다. 또, 단독주택에 국한됐던 주택유형도 노후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 품목도 가스밸브타이머 가스감지기 △방충망

△급수관 수리 등 4개의 품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4500만원의 사업비로 △노송동 천사길 벽화 조성 사업 △서학동 벽화사업 △KT&G와 유관기관 협력 사업 △마을개선 희망 사업 재료비 지원 △시민들이 간단한 보수는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리포요육 △무로 공구대여 사업 △공공건축가의 무료 건축 상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성능 향상 및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따뜻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전주시내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정당, 정치인 등이 게시하는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강제철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전주시내 주요 거리에는 정당과 정치인, 공공기관 등에서 부착한 현수막이 범람하고 이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방해와 도시미관 저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일반 상업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및 정당, 정치인이 게시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사전 안내를 통한 제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부터는 일반상업용 불법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키로 했다.

또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광고주와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행 부과하는 동시에 불법 게시된 광고물을 수거해온 시민에게는 광고물 유형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불법광고물(현수막) 단속강화와 함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추진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시 지정계시대 및 저단형계시대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전주동물원 방문 등 현장활동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1일 전주 동물원을 방문, 코끼리 사육시설과 LID(Low-Impact Development, 저영향개발) 그린빌딩인프라 조성사업 현장순례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1월 전주동물원에서 폐사한 코끼리 '코돌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육시설을 방문해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고미희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코돌이 폐사사건은 전주동물원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지적한 뒤 "동물친화적인 동물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동물원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LID 그린빌딩인프라 사업 현장을 방문, 이 사업의 기대효과와 다양한 적용기술 등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등은 "LID 그린빌딩인프라 사업은 우수유출량 감소, 지하수 함양량 증가 및 도시내 생태복지공간을 증가시키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관심을 표명했다.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은 "조속한 동물사 시설개선을 통해 동물친화적인 생태동물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자연친화도시 전주 조성을 위한 LID 그린빌딩인프라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경찰청이 21일 정보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모두가 공감하는 정보경찰 개혁

전북경찰청, 워크숍 개최

전북경찰청이 정보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완주군 상관면에서 강인철 청장과 도내 정보경찰 1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정보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워크숍은 정보경찰 개혁의 성공적인 정착 및 3.13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한 범죄정보 수집 강화 등 2019년 중점추진업무에 대한 소통·공감을 통해 방향성을 공유하고, 정보경찰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청장은 "올해는 제2회 전국 동

시 조합장 선거 및 제48회 전국소년체전, 국경감사 등 지역 치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치안력 운용이 필요인 시기로, 정보경찰은 주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개선점을 제안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정보활동은 오로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심하면서 모든 정보경찰이 힘을 모아 정보개혁을 완수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보경찰'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기자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투명성 'UP'

전주시, 심사 · 평가방식 개선... 1억 미만 신축공사도 공모 확대
27일 건축사 등 대상 공모 운영안 세부 내용 의견 수렴 간담회

전주시의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시 소규모 건축사무소와 청년·여성 신진건축가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들이 건축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 운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건축설계공모 운영안의 핵심은 심사위원 구성 등 설계공모 심사방식을 개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건축설계가 당선되게 함으로써 설계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운영안은 그간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온 설계용역 1억원 미만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공모를 확대하고 설계공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와 청년·여성 신진건축

사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된 설계공모 심사방식의 주요내용은 심사위원 공개 시기를 설계공모 시로 정하고 입상작은 시정 1층에 공개 전시하며 심사위원 선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설계기획부터 자문단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투표제 및 채점제 등 심사방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재직기준 등을 마련한다. 필요 시에는 발표심사(프레젠테이션)도 도입 시행한다.

김종업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설계공모 심사 및 평가방식이 개선되면 신진건축가 발굴은 물론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축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전주시 공공건축물이 생태건축물의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연석회의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위해 LH전북지역본부 등 주거복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만났다.

전주시는 21일 완주군 상관리조트 일원에서 민간전문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주거복지 자원연계, 재능기부, 주거복지 정책 개선·발굴 및 실천 논의를 위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제1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트워크 민간전문가들은 △주거복지 자원연계, 재능기부 등을 통한 집수리봉사, 보급자리 이

사비용 지원, 무료 건축상담, 주거복지 현장지원 △주거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청년 주거문제 집담회, 주거복지센터 필요성 토론회, 주거지재생정책 논의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거복지 실무자 양성 아카데미와 고령자·장애인 유니버설디자인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임재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이번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업과 민간전문가 상호 협력이 잘 추진 되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덕진구, 노후 주택 슬레이트 개량 지원 추진

덕진구는 1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발암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가의 처리 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불법 철거와 불법방치되는 것을 예방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이며 지붕재 또는 벽체재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이 해당되고 사업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3월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덕진구청 자원위생과(063-281-6329)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전북경찰청, 신입 순경 대상 '강한 경찰 양성' 현장실습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신입순경들이 강한 경찰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신입순경 294기 26명을 대상으로 8주간 현장실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습은 경찰서와 지구대 실습을 통해 중앙경찰학교에서 배운 기초 지식과 이론을 치안현장에 연장으로 현장에 강한 경찰관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특히 전북청에서 진행된 현장방문 기간 동안 '호국영웅' 차일혁 경무관의 흉상이 세워진 점을 내장산 위터파크와 임실 호국원을 방문해 선배들의 희생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전광훈 교육계장은 "앞으로도 경찰역사·윤리·정신·문화 등에 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갖춘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강석훈 기자

충간소음 시달리다

다툼 끝 흥기 등 10대

충간소음에 시달리던 10대가 위층 주민을 흥기로 위협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모군(15)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2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모씨(25)를 흥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이날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A군이 흥기를 들고 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개가 계속 짖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며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아파트 주차장서 만취상태로

주차하다 사고 낸 경찰 조사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상태로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이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9분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에 취해 주차하던 중 옆 차를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A경위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석훈 기자

남원시 속옷 훔친 40대 입건

대낮에 주택에 침입해 여성용 속옷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A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경 남원시 왕정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5점과 양말 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그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여성용 속옷을 보고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성 속옷을 보고 갖고 싶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